

아버지는 밖에서 보호

▲박광서: 금년에는 '맑고 향기로운 우리 집'이라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정: 우리 주위엔 수십 억을 호가 하는 가족이 즐비하지만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집안 식구들이 온기있게 모여 앉아 오순도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 가정은 마치 하숙집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맑고 향기롭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뜻에서 금년활동의 주제를 '가정의 문제'로 정했습니다.

▲박광서: 스님께서는 자주 어머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못지않게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법정: 한 가정의 기동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왜하면 어머니가 있는 집안과 어머니가 없는 집안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어머니가 계시면 고아취급을 받지 않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고아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온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성과의 부성애는 다릅니다. 모성은 가슴에서



법정스님



박광서 교수

법정스님과의 만남 ③

주제: 맑고향기로운 가정

대담: 박광서 <서강대 교수>

맑고향기롭게 모임·BBS 특별기획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제3의 문제입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 받고 이해 속에서 자란 아이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따뜻한 가정의 온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박광서: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항상 강조하셨고 생활에 오신 것으로 알

▲법정: 생로병사가 인생의 과정인데 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인간사회라는 것은 남녀노소가 어울려서 사회를 이루는 것인데 경륜과 덕망을 갖춘 성숙한 연령층이 많을 때 그 사회는 건전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어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른을 어른답게 모시지 못한 우리 후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광서: 대부분 불자들은 수행과 사회, 가정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활동은 가정을 떠나서 산사에서만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면 종교하고 무관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교가 가정에 뿌리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족이 바로 불보살

▲법정: 불교를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세간과 출세간,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종교와 가정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청정하고 간결한 신앙심으로 기도한다면 장소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종교생활이 구현될 때 생활자체가 건전해집니다. 일상생활을 떠난 종교는 판명적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물론 조용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만화 제목: 법구경. 소개글: * 더러움의 장 *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작자: 이 할원

만화 본문: '더러움의 장'의 첫 번째 장면. 주인공은 불교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라는 주제를 다룬다.

“어머니 역할 온전할때 가정화목”

이해와 사랑속에 자란 청소년 '곧게 커가는 나무' '호화 가옥 준비하지만 '사랑의 온상'은 줄고 있어'

우려나오는 사랑이고 부성애는 머리에서 우려나오는 사랑, 즉 가정 밖에서 보호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슴에서 따뜻하게 우려나오는 모성애가 인간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어머니의 사랑이 절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박광서: 청소년기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른들의 사랑이나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의해 인생이 전향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과 지도를 해야겠습니까.

▲법정: 학교교육보다는 가정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정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소 부모들을 편하게 생각해왔다면 어떤 문제라도 쉽게 풀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대화도 없고 공통적인 관심사가 없다면 아이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밖으로 관심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영동한 곳에서 방황하게 되고 문제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모든 문제는

들은 건전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박광서: 예전에는 형제들이 많아서 서로 부대끼다보면 남들과 같이 사는 방법, 예의를 배우게 되는데 요즘은 형제가 많지 않아 공동체의식이 없는 아이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공동관심사 만들어야

▲법정: 한마디로 공동체의식이 없다는 것은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기 때문에 한 가족이면서도 남남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의 온전한 대화가 지속하려면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하루가 모르게 성장해 가는데 부모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아이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이기 때문에, 늘 어리게만 보고 명령조로 대화를 하려 한다면 진정한 대화는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진솔하고 원만한 대화를 원한다면 수평적인 자리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간에 대화의

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려는 무소유의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 불만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만난 인연에 감사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따뜻하게 서로 도우면서 지내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무소유가 아니겠습니까. 무소유는 특별한 생활이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구실원들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우리 집을 맑고 향기롭게 가꿀 때 그 집이 맑고 향기롭게 빛나는 것이지 돈이나 학벌 혹은 지식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소한 일에도 서로의 마음이 교감될 때 맑고 향기로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박광서: 요즘은 의학 발달로 해서 노년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들이 산업사회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주부들까지도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돌보는 노인처럼 여겨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노인문제를 잘 풀어갈 방안을 없겠습니까.

입니다.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갖 모순과 갈등을 지니고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리를 찾고 열반을 찾고 하는 것이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바로 내 남편 내 아내가 부처요, 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박광서: 마지막으로 불자들이 주축을 이룬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한해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정: 이제는 삶의 질과 가치를 위해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현재 서있는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새물결을 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그마하고 사소한 일상생활부터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지금 맑고 향기롭게 꽃피우고 있는가 아닌가 수시로 살피고 묻는다면 몸이 트고 씩이 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김종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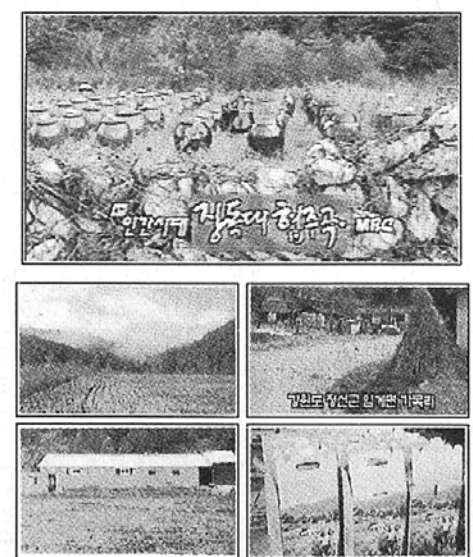
신토불이 정신에 이름해야 정선 메주!

MBC 「신인간시대」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우리콩 메주

강원도 깊은 산골, 굽이굽이 돌아 정선아리랑으로 유명한 조용한 산골마을에 신토불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몸살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신토불이 정신을 못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돈연스님과 가목리 농민들은 오늘도 묵묵히 햇콩으로 쏘 메주를 띄우고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돈연스님과 정선 임계 가목리 농민들이 함께 만든 정선 메주를 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것을 간직하려는 가람유통은 2천만 불자들의 식탁에 우리 농산물이 놓여지기를 기원하면서 山寺의 청정 무공해 메주 보급을 위해 願力を 다하고 있습니다.



- 정선메주의 특성
- 정선메주는 돈연스님이 6년째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골마을에서 농민들과 직접 콩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햇콩으로 만든 메주입니다.
-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에서 자라는 콩으로 가마솥에 삶고 짚으로 묶어 매달아 말린 다음 다시 띄운 순수한 전통식 토종메주이므로 담근 된장과 간장은 신선하고 깊은 맛이 있습니다.
- 메주 한 개의 무게는 1kg-1.3kg입니다. 손으로 다듬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 차이는 있으며 한 박스에 4개가 들어 있습니다. 한 박스는 소두 한알이 조금 못되며 한 박스의 메주로 된장 10-12kg, 간장 8리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된장의 효능
- 양조간장과는 달리 전통의 된장. 간장은 암예방과 중금속 오염의 해독능력까지 겸비한 수준높은 자연식품입니다. 냄새가 독특하여 유럽인이 즐겨먹는 전통치즈의 독특한 냄새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구수하고 향기롭습니다.
- 잘 띄운 발효메주에는 수백가지의 곰팡이 및 세균에 의해 단백질질을 생산하는 효모균이 집단으로 서식, 아이노산을 제공하여 된장은 위기능 뿐만 아니라 소장과 대장의 기능을 촉진시키고 척추와 뇌기능의 발달을 가져온다고 동의보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 전통식의 된장, 간장은 우리 민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에 내세울 첨단식품입니다.

◎ 메주 한 박스 가격은 40,000원입니다 ◎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파손된 메주는 언제든 교환해 드립니다.
●큰 장독 600개에 담은 햇된장 및 햇간장은 6월에 사실 수 있으나 그 전에 미리 예약 주문하시면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해 드립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공급처 가람유통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B/D 2층
전화: (02)720-5121, 736-5108